

(祭餅, Hostia.라틴어)

제병이란 '제사를 드리는 데 사용하는 떡'이라는 뜻인데, 미사 전례에서는 성체를 만들 재료로 봉헌되는 빵을 말한다.

제병은 포도주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두 가지 재료 중의 하나로서, 사제의 축성의 말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화된다.

제병의 원료는 밀가루인데, 이 재료를 선택하신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비유해서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밀알'(요한 12,24)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연상하게 한다. 또한 제병은 누룩이 들지 않은 빵으로 만드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께서 최후의 만찬 때 사용하신 빵이 바로 누룩 없는 빵이었기 때문이다.

교회법에 의하면, 제병으로 사용하는 "빵은 순수한 밀을 재료로 하여, 부패의 위험이 없도록 최근에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924조)고 말하고 있다. 동방교회에서는 대개 발효시킨 빵을 사용하고, 서방교회는 11세기이래 발효시키지 않은 빵을 사용해 왔다 (교회법 926조).

초대교회 때는 신자들이 가정에서 음식으로 먹는 빵의 일부를 가져와 미사 때 예물로 바쳤다.

따라서 성체 축성용 빵(제병)도 가정 음식용 빵과 같은 형태였다. 그 후로 미사 예물이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봉헌되면서 제물로 마련될 빵은 교회에서 일괄 준비하게 되었다. 제물이 빵 이외의 것으로 바뀌자 제병은 적당한 두께의 원형을 취하게 되어, 오늘날에는 편의상 얇은 과자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제병은 현재, 대제병(大)과 소제병(小)으로 구분되는데, 대제병은 주례 사제용이고, 소제병은 신자용이다. 대제병은 성반 위에, 소제병은 성합 안에 넣어진다.

